



도하아시안게임 한달 앞으로

한·중·일 자존심 3파전

2006 프로야구 마감

순위 이변 속 기록 풍성



12월1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제15회 아시안게임 개막을 30여일 앞두고 태릉선수촌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메달을 향한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3회 연속 종합 2위 도전

아시아 최대의 스포츠축제 2006도하아시안게임이 12월1일 개막된다. 이번 대회는 한·중·일 3국이 어느때 보다 치열한 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1일이 아시안게임 D-30이 됨에 따라 ① 한·중·일 자존심 3파전 ② 아시아를 빛낼 태극전사들 ③ 베일 속 북, 어떻게 준비하나 ④ 광주·전남 스타, 우리도 한다 등 모두 4건의 특집 기사를 준비했다.

중국, 금 160개 목표...7회 연속 우승 다짐
일본, 엘리트 체육 투자...'한국 추월' 야심

'중국의 금메달 독식을 막아라. 일본을 제치고 종합 2위를 수성하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06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을 앞둔 태극전사들에게 내려진 특명이다. 중국은 2008 베이징 올림픽의 전초전이나 다름 없는 이번 대회에서 전체 39개 종목에 걸린 423개의 금메달 중 160개 내외를 획득, 지난 1982년 뉴델리 대회 이후 7회 연속 우승을 베풀고 있다. 반면 한국은 체스와 카바디를 제외한 37개 종목에 750여명의 메머드급 선수단을 파견, 70~75개 안팎의 금메달을 따 중국의 독주를 막고 3회 연속 종합 2위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본은 이번 대회에서 체육의 과학화와 엘리트 체육에 대한 집중 투자로 구축

한 탄탄한 전력을 바탕으로 한국을 추월하겠다는 각오다. '아시아 스포츠 삼국지'에서 한·중·일이 금메달을 놓고 총돌할 대표적인 종목은 수영. 중국은 아테네올림픽 2관왕에 빛나는 '다이빙 여제' 귀징징 등 다이빙 부문의 강세를 앞세워 금메달 사냥을 준비하고 일본 역시 아테네 2관왕 기타리마 고스케가 출전하는 경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국은 새로운 간판으로 성장한 경영의 박태환(경기고)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 육상에서는 김이용(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영준(코오롱)이 대회 5연패를 노리는 남자 마라톤의 쌍두마차로 영광 재현에 앞장서고 올해 전국체전 때 17m07을 뛰어 마(魔)의 17m 벽을 넘었던 남자

세단뛰기의 김택현(조선대)도 신화 창조에 도전한다. 탁구와 배드민턴은 한국-중국, 유도와 야구는 한국-일본의 뜨거운 자존심 대결이 예상된다. 탁구는 2004아테네올림픽 단식 금메달리스트 유승민(삼성생명)이 단식과 단체전 우승에 도전하고 있고, 세계 최강 '폼비' 오상은(KT&G)-이정우(농심삼다수) 조를 앞세운 남자복식도 금빛 스테이션을 노리고 있다. 배드민턴은 '황금 콤비' 이경원-이효정(이상 삼성전기)조가 중국의 가오링-후양수이, 양웨이-장위엔조를 상대로 힘겨운 우승 대결을 펼치고, 남자 간판 이현일(김천시청)을 내세운 남자단식과 이재진(밀양시청)-이효정, 이용대(화순실고)-황유미(대교농높이)조가 나서는 혼합복식도 메달을 바라보고 있다. '한관승의 달인' 이원희(KRA)를 간판으로 내세운 유도는 3개의 금메달 메치기에 나서고 2002년 부산 대회 때 6개의 금메달을 딴 펜싱은 3차례 금빛 찌르기에 도전한다. 태권도와 효자종목 양궁, 남녀 하키(이상 예상 금메달 2개), '여자 헤라클레스' 장미란(원주시청)이 선봉장을 자임한 역도도 무더기 승전보로 한국의 종합 2위 수성에 견인차로 나설 전망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괴물' 류현진 '마운드 거물'로

투수 부문 트리플 크라운... 단연 돋보여

2006 프로야구가 삼성의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마감됐다. 올 시즌은 마운드와 타석에서 그 어느때 보다도 풍성한 신기록이 쏟아졌고, 투고 타저의 현상은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남았다. 여기에 시즌 초 약체로 분류됐던 현대의 예상외 선전(3위)과 지난해 '골짜기' KIA의 포스트 시즌 진출, 서울과 부산 연고 팀의 몰락 등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꼽힌다. 페넌트레이스 504경기, 포스트시즌 13경기 등 총 517경기의 대장정을 마친 2006년 프로야구를 ①순위 이변속 풍성한 기록잔치 ②KIA 골짜기에서 4강까지 ③KIA 'V10'을 꿈꾼다 등 3차례의 시리즈로 분석해 본다.

두산·LG 강팀 예상 깨고 PO행 좌절

▲서울·부산 연고팀 몰락 최강으로 분류됐던 삼성은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SK에 1위 자리를 내준 채 중위권을 맴돌았다. 그러나 6월 9일 선두를 차지하며 결국 2년 연속 정규리그 1위, 한국시리즈 우승이라는 대 위업을 달성했다. 반면 서울을 연고지로 한 두산과 LG는 '중·상위권'의 전력으로 예상됐으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용병농사'에 실패한 LG는 감독 교체 사태까지 겪은 끝에 골짜기로 시즌을 마감했다. KIA와 포스트시즌 진출을 놓고 막판까지 경합한 두산도 5위로 가을잔치 합류에 실패했다. 지난 시즌 5위를 차지했던 롯데는 원정경기에서 17연패를 당하는 등 부진을 겪고 7위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 하지만 별다른 전력 보강 없이 약체로 평가받았던 전년도 7, 8위팀인 현대와 KIA는 각각 3위와 4위로 4년째씩 접프하는 이변을 만들어 냈다.

오승환 47S·송진우 통산 201승 대기록

▲신기록 쏟아진 한해 올 시즌 기록의 중심은 단연 '괴물 신인' 류현진(19·한화)이다. 류현진은 시즌 18승6패, 방어율 2.23, 탈삼진 204개를 기록해 투수 3관왕의 영예를 차지했다. 투수 트리플 크라운은 선동열 삼성 감독이 현역시절 4차례(86, 89~91년) 달성한 바 있다. 물론, 신인이 이 영예를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만이 아니다. 신인 최초로 한 시즌 '200이닝-200탈삼진'을 달성했다. 또 지난 86년 김건우(당시 MBC)가 수립했던 한 시즌 신인 최다승 타이 기록도 수립했다.



류현진

삼성 오승환(24)은 페넌트레이스에서 47세이브를 올려 일본 프로야구 이와세 히토키(주니치)가 지난해 작성한 아시아 최고기록(46세이브)을 갈아치웠다. 타자 중에선 단연 롯데 이대호가 돋보인다. 이대호는 타격(0.336) 홈런(26개)과 타점(88개) 1위로 트리플 크라운을 썼다. 84년 이만수(SK 코치) 이후 22년 만에 나온 타격 3관왕의 위업이다. 여기에 장타율(0.571)서도 1위에 올라 올 시즌 개인 타이틀 최다인 4관왕에 올랐다. 노장들의 신기록 행진도 올 시즌 프로야구의 한 면을 장식했다. 삼성 양준혁(37)은 개인 통산 최다타점(1천200개), 최다안타(1천946개), 최다득점(1천111점), 최다루타(3천305루타), 4사구(1천131개) 등 홈런과 도루를 제외한 공격 전부분에서 신기록을 작성했다. '최고령 투수' 송진우(40·한화)는 한국프로야구 최초로 개인 통산 200승(통산 201승) 고지에 올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31일(화) ▲FIVE 세계 여자배구 선수권(한국-코스 타리카)(11 : 50·Xports)

▲유소년축구 결승전(14 : 10·KBS1) (19 : 20·SBS스포츠), <키르기스스탄-한국>(22 : 20·Xports, SBS스포츠) 11월 1일(수) ▲UEFA 챔피언스리그 32강 4차전(S모스크바-인터밀란)(02 : 30·MBC ESPN), <바르셀로나-첼시>(02 : 30·MBC ESPN)

Advertisement for investment services: 자영업자 전문대출, 자동차 전문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주)신세계투자금융. 대표전화: 10621431-3130

Advertisement for RYXN massage shoes: 마사이족 워킹슈즈. Features: 무릎관절, 요통, 비만, 편발, 어깨통증. Price: 147,000원 (197,000원).

Advertisement for HSEIL.com: www.HSEIL.com, T. 1035-0885. Features: 100만원!!!

Advertisement for Daewang Sangsi: 연토배기 역가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주)대왕상시. TEL: (062)262-0101